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작가 잠들다

향년 80세...70년대 빈부격차·사회적 갈등 사실적으로 그려 ‘난소공’ 320쇄 148만부 판매 ... ‘칼날’·‘시간여행’ 등 다수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대중에도 잘 알려진 소설가 조세희(사진)가 25일 지방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조 작가가 아들인 조중현 도서출판 이성과함 대표는 “조세희 작가가 오늘 지방으로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타계했다”고 밝혔다.

1942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라벌에 대 문예창작과와 경희대 국문학부를 졸업했다. 이후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서 단편 ‘뚝대 없는 장선(葬禮)’이 당선돼 등단했으나 10년 동안 소설 작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5년 ‘칼날’을 발표하며 다시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고인은 ‘뫼비우스의 띠’,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등 단편 12편을 묶은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1978년 문화와지성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고인의 대표적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난장이가 가족을 통해 산업화의 그늘에 신음하는 도시 하층민의 삶을 그렸다.

서울시 낙원구 행복동 무허가 주택에 사는 난장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1970년대 빈부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재개발로 인해 행복동 판자촌에서 쫓겨나게 된 난장이 가족의 절망적인 현실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계급 갈등과 같은 병리적 사태를 환기했다.

고인은 2002년 이 작품에 대해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과 식사를 하는 동안 철거민들이 대문과 시멘트 담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싸우다 돌아오면 서 한동안 포기했던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면서 “유신정권의 피 말리는 억압 독재가 없었다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올해 7월까지 320쇄를 돌파한 이 책의 누적 발행 부수는 약 148만 부에 이른다.

고인의 다른 작품으로는 ‘시간여행’, ‘침묵의 뿌리’, ‘하얀 저고리’ (미출간) 등이 있다. 1980년대 초 신문과 월간지에 연재했다가 중단했던 ‘하얀 저고리’는 민주화의 역사를 다룬 소설로 고인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못다 한 말을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생전 “1980년대 사회에 대한 절규를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1997년 인문사회 비평잡지 ‘당대비평’을 창간했다. 2008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30주년을 맞아 그의 문학세계를 되짚어보는 의미로 동료와 후배 문인들의 글을 엮은 기념집 ‘침묵과 사랑’이 출간된 바 있다. /연합뉴스



‘재벌집 막내아들’ 현실적 결말 vs 꿈 허탈

시청률 26.95%로 종영... 시청자들 반응 엇갈려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시청률 26%대로 막을 내렸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 방송된 ‘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 회 시청률은 26.94%(비지상파 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방송된 ‘부부의 세계’ (자체 최고 시청률 28.4%)에 이어 JTBC 역대 드라마 가운데 최고시청률 2위 기록이다.

최종회에서는 진도준 (송중기 분)이 교통사고로 죽고 현생으로 돌아와 윤현우 (송중기)로 순양 그룹을 향한 복수를 완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윤현우는 불법 비자금을 숨기려는 순양 그룹 부사장 진성준 (김남희)에 의해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할 뻔했으나, 순양그룹의 불법 승계를 추적하던 서민영 검사 (신현민)에 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현우는 오세현 (박혁권)을 찾아가 순양에 맞서 연대하자고 설득하고, 오세현은 소액주주의 힘을 얻어 순양의 승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다. 서민영 역시 순양그룹 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청문회를 계획하며 힘을 보탠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청문회로 여론은 진성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윤현우는 20년 전 진도준 교통사고 현장에서 녹음한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판을 뒤집는다.

진도준을 죽게 한 교통사고 현장에 미리 트럭을 세워뒀던 차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던 그는 당시 통화 녹음으로 진도준의 죽음을 사주한 사람이 진영기 (유재문)였고, 비자금을 위해 윤현우를 살인 교사한 이는 진성준 (김남희)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드라마는 말미에 “이제 안다. 빙의도 시간 여행도 아니다. 그건 참회였다”라고 읊조리며



순양가 일가의 회유에 넘어가 진도준 살인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과거를 참회하는 엔딩을 그렸다.

원작 웹소설의 결말을 뒤집은 이런 엔딩을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원작에서는 진도준이 결국 순양그룹 회장직에 앉고, 윤현우가 죽은 곳에 가 장례를 치르며 결말을 맺는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결말이었다”는 평가부터 “결국 꿈이었다니 허탈하다”, “용두사미다” 등의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 /연합뉴스



전남문화재단은 17개 군 대상으로 ‘행복전남 문화지소’를 진행중이다. 사진은 장흥문화지소 행사 모습.

전남문화재단, ‘행복전남 문화지소’ 확대 운영

11개 군 대상 워크숍...소통체계 구축 면소재지까지 확대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전남도 17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초자치체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마련해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체험을 선보이는 것으로 전남형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이다.

재단은 현재까지 고흥, 장흥,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등 총 6개 군을 지원했다.

올해 3년 차로 운영 중인 고흥 문화지소는 지역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해남 문화지소는 ‘별반장’으로 활동하는 지역 청년 활동가들이 개별 프로젝

트를 실행하고 함께 모여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년 차 운영 중인 진도 문화지소는 우수한 전통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장흥문화지소는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적자원 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설문조사, 워크숍, 시민기획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재단은 앞으로 신규 문화지소를 발굴하기 위해 11개 군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측면에서 면소재지까지 확대해 기존의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 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문협 신임 회장에

이근모 시인 선출

광주문인협회(문협) 신임 회장에 이근모 (73) 시인이 선출됐다.

광주문인협회는 지난 23일 광주예총 방울소리 공연장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이근모 시인이 30.1%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문협선거는 김석문 시인, 박덕은 시인 등 모두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 그 결과 이근모 시인은 총 413표 가운데 18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2위는 24.6%(150표)를 획득한 박덕은 시인, 3위는 13.1%(80표)의 김석문 시인이 차지했다. 이날 선거는 후보자 발표를 비롯해 후보자 연설, 추천의 말, 투표 진행, 개표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 회장은 “문협이 문인들의 정서를 소통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정치만 같은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러한 정서를 화합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시민과 함께 문학의 정서를 공유하는 단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협의 기관지 ‘광주문학’ 원고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 횟수 또한 현행 6개월에서 격월간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회원의 작품을 지정작품으로 하는 낭송 대회와 광주문학사 발간 등 회원들의 문인활동 조맹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천 기자 sk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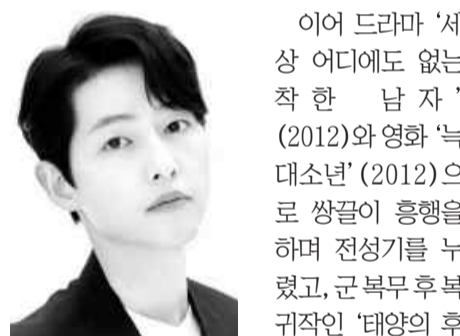
송중기, 영국여성과 열애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

배우 송중기(사진)가 열애 중이다. 교제 상대는 영국인 여성으로 전해졌다.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제이엠스튜디오는 26일 “송중기가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츠조선은 송중기가 연예계와는 관계없는 직종의 영국인 여성과 열애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교제 사실 이외의 정보들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2010)에서 첫 주연을 맡으며 특유의 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연합뉴스



이어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2012)와 영화 ‘늑대소년’ (2012)으로 쌍꺼풀이 흥행을 하며 전성기를 누렸고, 군 복무 후 복귀작인 ‘태양의 후예’ (2016)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송혜교와 2017년 10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예식을 올렸지만, 약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가 주연한 영화 ‘화란’ (감독 김장훈)도 최근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3>대연건설</h3>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h3>(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3>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h3>(주)대신수산유통</h3>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3>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3>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h3>금남로 사주 카페</h3>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p>	<h3>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h3>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p>	<h3>면쟁이</h3> <p>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자도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h3>(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h3>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목)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3>무크광주세정점</h3> <p>광주시 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h3>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3> <p>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3>송가네반찬</h3>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3>다흥치마한정식전문</h3>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h3>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3>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원비 ☎ 062-225-4445, 010-3603-3064</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